

국립자연사박물관의 추진 방향

이창진, 조준오*

충북대학교 지구과학교육과,

361-763 충북청주시 흥덕구 성봉로 410 (leecz@cbu.ac.kr)

요 약

I. 서 론

1) 필요성

- ① 거시적인 안목을 가진 자연과학자의 총원
- ② 현재 한국 자연사 관련 박물관에서 실종된 연구 기능의 활성화
- ③ 학생과 일반인에게 자연에 대한 탐험과 탐구 의욕 고취
- ④ 정부의 세계 자연 자원 정보 관리 능력 함양

2) 목 적

- ① 자연 자원 연구(탐사-수집-보존-보전-연구) 기능이 극대화된 국립자연사박물관 구축
- ② 자연 표본 전시-교육-출판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시스템구축

II. 자연사박물관이란?

1) 자연사¹⁾의 기원

- ① 프리니우스(Caius Plinius Secundus ; 일명 Pliny the elder, A.D 23 - 79) : 로마시대 군인이자 정치가인 자연사학자, 37권의 “자연사(Historia Naturelle) 저술 - 자연과 인간에 대한 백과사전이자 교과서
- ② 레오나르도 다 빈치(Leonardo di ser Piero da Vinci, 1452 - 1519) : 자연사, 수학, 기술, 발명, 미술, 조각, 건축, 식물학, 음악, 문학, 지구과학(천문, 지질, 기상) 과 같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 정통한 인물
- ③ 뷔퐁(Georges-Louis Leclerc, Comte de Buffon, 1707 - 1788) : 44권에 달하는 “일반 및 특수자연사(Histoire Naturelle Générale Particulière)”를 저술. 데카르트적인 자연에 대한 기계론에서 탈피하여 유기적 세계관의 기초를 마련.
 - 제1권 지구의 이론(Theorie de la Terre, 1749)에서 지구의 나이, 즉 지구생성의 기간이 성서에서 주장하고 측정하는 것보다 길다고 주장하고 있어서 당시 소르본느대학교 신학부 교수들의 격렬한 항의를 받기도 했다. 또한 제1권에서 성경에 나오는 대홍수설(The Great Deluge)을 비판하기도 하였다.
 - 1749-1767년에는 지구, 인류, 네발 가진 동물부로 이루어진 15권을 출판
 - 1774-1789년에는 이들 15권에 대한 부록이자 보충 내용 7권을 출판
 - 1770-1788년에는 조류부(鳥類部)로 된 9권과 광물에 대한 5권
 - 라세페드(Bernard-Germain-Étienne de La Ville-sur-Ilion, comte de Lacépède or La Cépède, 1756 - 1825)에 의하여 곤충류, 물고기류, 고래, 하등 척추동물 등 8권이 추가

1) 자연사(自然史, Natural History) : 지구과학, 생물학, 고고인류학.

편찬되어 총 44권에 달하는 대작 완성 : 근대 자연과학의 모체

2) 자연사박물관의 기원과 변천

- ① 그리스시대의 세계 최초의 박물관으로 알려지는 알렉산드로스 대왕이 창설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박물관은 문학 및 예술에 대한 교양의 교육장으로 개관
- ② 이 박물관은 기원전 3세기에 이집트의 필라델포스(Ptolemy II Philadelphus; 309 BC - 246 BC)왕에 의해 완성된 것으로 건물은 알렉산드리아 궁전의 일부를 사용했다. 이 건물에 사제실, 강연실, 넓은 공간의 방과 동식물원이 부설되었으며 천문학, 외과 기계와 상아 그 밖의 자료를 보관 전시하였다.
- ③ A.D 4세기에는 이 박물관의 문을 닫음 : 학문적 또는 예술적 효용 가치 없음.
- ④ 중세 1000년간 사원을 중심으로 예술품과 자연 표본을 수집. 특정인만 감상
- ⑤ 르네상스가 14세기 말기부터 이탈리아에서 시작된 르네상스운동이 프랑스, 영국, 독일을 거쳐 전 유럽으로 번져 나가면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 문화에 대한 열망과 연구가 활발해짐
- ⑥ 15세기 지리 발견 시대에 편승하여 인도 향료와 신대륙 발견 - 인도 및 신대륙에서 가져온 각종의 수집품들은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연구, 정리되어 오늘날의 고고학박물관과 문화사박물관 및 자연사박물관의 설립의 기초가 되었다.
- ⑦ 15 - 16세기 레오나르도 다 빈치 외에 라파엘(Raphael Sanzio 1483 - 1520), 미켈란젤로(Michelangelo di Lodovico Buonarroti Simoni 1475 - 1564)와 같은 예술가의 작품 - 문화사박물관의 기초
- ⑧ 17세기 자연과학의 발달로 유럽 여러 나라에 과학-자연-문화의 복합박물관 등장 - 영국의 대영박물관(한스슬론 경, Sir Hans Sloane, 1660 - 1753; 1759년)의 수집품과 프랑스의 르브르박물관(왕실이 수집하여 보관하고 있던 예술품을 중심으로 1793년에 개관)
- ⑨ 17 - 18세기 유럽 여러 나라에 복합 박물관 등장
- ⑩ 19세기에 들어오면서 산업혁명을 계기로 자연과학의 급격한 발달에 편승하여 자연과학으로 전문화된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이 만들어지기 시작하여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을 설립 ; 비형식 교육 기관으로 각광
- ⑪ 21세기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의 전시와 교육이 선진국을 중심으로 대폭 재구축: 미국 국립자연사박물관, 아메리카자연사박물관, 영국 런던자연사박물관, 프랑스의 국립자연사 박물관, 프랑스 과학기술박물관

III. 한국 자연사박물관의 현재

1) 한국 자연사박물관의 역사

- ① 1907년 우리나라 최초 자연사박물관 : 창경궁 내에 설치한 식물원과 동물원
- ② 1945년 국립과학관 : 문교부 산하에 설립된 자연사와 과학사 복합 과학관
- ③ 1955년 제주도 학생과학관 : 1955년 이후 도별 학생과학관이 계속 설립
- ④ 1990년 이후 : 학생과학관의 명칭이 과학교육원 또는 교육과학원으로 변경
- ⑤ 2000년 전후 : 과학교육원(교육과학원)이 교육정보원으로 통합
- ⑥ 2004년 이후 : 교육과학원 혹은 과학전시관으로 회귀
- ⑦ 현재 자연과학 관련 박물관의 수 : 100 여개

2) 한국 자연사박물관의 현재

자연과학 관련 박물관(연구원 혹은 과학관) - 국립과학관, 과학교육연구원, 천문우주과학관, 해양수산산림박물관, 자연사박물관, 전문박물관으로 분류(한국과학관협회, 2009).

① 한국 자연사박물관의 양적 수준 : 순수하게 자연사박물관으로 분류된 수를 세어보면 17개 밖에 되지 않지만 대부분의 비형식과학교육기관이 자연사박물관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거나 그 영역에 속한다. 이렇게 따져보면 현재 자연사관련 박물관은 약 90개이고 순수한 자연사박물관은 약 30개 정도로 추산된다. 이 수치를 메이어스(Mares, 1993)의 분석에 적용시켜 평가해 보면 개발도상국과 경제선진국 사이 정도에 해당된다. 우리나라 경제력을 세계 10위권으로 볼 때 자연사박물관의 수로 보면 100위권 밖으로 밀려난다.

② 한국 자연사박물관의 질적 수준

- 첫째 우리나라에는 자연 자원 관리를 총괄하고 교육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다. 이것을 군대로 이야기하면 사령부가 없다는 말이다. 21세기에 들어오면서 국가 간에 자연 자원 쟁탈전이 심각해지고 있다. 이러한 시기에 국내외 자연 자원의 정보를 총괄하는 국립자연사박물관이 없다는 것은 자연 자원에 대한 관리 의사가 없다는 말과 같다. 이렇게 나가다가는 세계의 자연 자원 정보는 물론 자칫 잘못하면 우리나라의 자연 자원도 관리할 수 없을 것이다.

자연 자원은 정부 공무원 몇 사람이서 관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민 대다수가 자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자연 자원을 지키고 잘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이 국민들에게 자연 자원에 대한 교육과 지식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장소가 바로 국립자연사박물관이기 때문에 국가적으로 집중 투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사령부가 없다는 것은 자연 관리 능력 수준이 '0'이라는 말과 같다.

- 둘째 현재 자연사박물관과 자연사 관련 과학관(과학교육원)의 역할은 대부분 초보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자연사박물관의 주요 기능인 표본 탐사-수집-보존(보존)-연구-교육-전시-출판 중에서 전시와 교육 역할에 주력하고 있다. 표본 수집과 보존(보존)이 안 되고 연구된 자료가 없이 전시 설명서를 만든다. 전시 내용과 방법에서도 초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

- 셋째 자연사박물관 소속 연구원의 수가 너무 적고 연구 기반 조성이 거의 되어 있지 않다. 자연사박물관의 핵심 역할인 탐사와 연구는 아주 취약하며, 자연 표본에 대한 보존과 보존 전문가를 확보하고 있는 곳이 손을 꼽을 정도이다. 이러한 연구 기반이 취약하기 때문에 자연사박물관 전문학술지를 발간하는 곳은 거의 없다. 국립과학관의 경우도 현재까지 과학 전문학술지를 발간하지 못하고 있다.

자연사박물관이나 과학관에서 연구물이 전문학술지로 발간되지 못하는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연구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연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이다. 연구원의 대부분은 연구 활동 대신 자연사박물관의 행사 운영과 교육 활동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업무가 벅찬 상태이다.

- 우리나라의 자연사 관련 박물관의 연구원 수와 행정 직원 수를 비교해보면 행정 직원 수가 훨씬 많다. 이러한 인원 배치는 어느 나라의 과학관이나 자연사박물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다.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에서 행정 직원이 많을 아무런 이유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그 이유는 우리나라 과학관과 자연사박물관의 주요 활동이 전시와 교육 활동에 국한되어 있고 이 활동이 행정 직원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 자연사박물관은 양적인 면 뿐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 초보적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자연과학 관련 박물관(연구원 혹은 과학관)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국립중앙과학관과 국립서울과학관을 운영해 왔으며, 2008년 11월에는 국립과천과학관을 개관하였다. 그리고 앞으로 영남과 호남에 과학관을 세울 준비를 서두르는 한편 2009년도에 문화관광부에서 국립자연사박물관 설립을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 새롭게 만들어지는 과학관과 국립자연사박물관은 앞에서 제시한 세 가지 단점을 어떻게 극복하느냐에 달려있다.

VI. 결 론

모든 일에서 지도자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최적화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사박물관에 정통한 인물을 관장으로 선정하는 것이다. 만약 한국에 그만한 인물이 없으면 외국에서 찾아야 한다. 일단 관장이 선정되면 그에게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는 동시에 위원장의 직책을 주어 모든 권한과 책임을 감수하도록 하는 것이다. 국립자연사박물관의 핵심 과업은 자연에 대한 연구-교육-전시-출판이므로 이 핵심 과업을 완수하기 위하여 반드시 다음과 같은 추진 단계를 거쳐야 한다.

제1단계. 연구 기반 조성 단계

- 1) 자연 표본 탐사-수집-연구를 위한 예산 편성과 연구진 구축 및 과업 수행
 - 탐사-수집-연구를 위한 예산 확보; 단기-장기 예산
 - 분야별 연구책임자 선발 및 연구진 구축; 단기 과업
 - 한국의 자연 표본과 연구물 방문 조사 및 수집; 단기 과업
 - 한국의 자연 중 연구가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표본 탐사 및 연구; 단기 과업
 - 세계적 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국외 자연 표본과 연구물 조사; 단기 과업
 - 국외에 자연 탐사 원정대를 파견하여 자연 자원 수집 및 연구; 연속 장기 과업
 - 모든 연구물을 일정 기간 별로 모아 국립자연사박물관 정기 간행 학술지로 발간; 연속 장기 과업
- 2) 자연 표본을 보존-보전하는 예산 편성과 연구진 구축 및 과업 수행
 - 자연 표본을 보존-보전하는 예산 확보; 단기-장기 예산
 - 분야별 연구책임자 선발 및 연구진 구축; 단기 과업
 - 국내 자연 표본과 연구물에 대한 보존-보전 실태 파악; 단기 과업
 - 국내 자연 표본과 연구물의 수집-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 단기 과업
 - 세계적 자연사박물관을 중심으로 국외 자연 표본과 연구물 관리 실태 조사; 단기 과업
 - 자연 표본의 보존-보전을 위한 수장고 확보; 단기 과업
 - 국내외에서 수집된 자연 표본 보존-보전 관리; 연속 장기 과업
 - 모든 연구물을 일정 기간 별로 모아 국립자연사박물관 정기 간행 학술지로 발간; 연속 장기 과업

제2단계. 전시-교육 기반 조성 단계

- 1) 기반 조성 단계에 참여했던 연구진을 중심으로 큐레이터 선정
 - 분야별 큐레이터의 역할을 수행할 인재 발굴 및 선발; 단기 과업

- 전시물 선정과 교육 자료 및 전시 방법에 대한 연구 및 발표; 연속 장기 과업
- 2) 학생과 대중을 위한 자연 자원 전시회 개최 및 전시 계획 구축; 단기 과업
- 연구는 대중의 지적 욕구를 충족시켜주며, 대중의 지적 욕구는 연구를 활성화시키므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다. 흥미롭고 정확한 연구 내용을 전시하여 학생과 대중이 자연사박물관의 필요성을 공감해야 한다.

제3단계. 국립자연사박물관 건설 추진 단계

- 부지 확보, 건축물 설계 등

이상에서 제시한 3단계 중 1단계와 2단계를 성공적으로 완수하면 우리나라 국민과 정부가 앞장서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건설하려고 할 것이다. 이 두 단계에 참여하여 주어진 과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인력은 국립자연사박물관을 성공적으로 설립할 최정에 부대가 될 수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하여 제3단계와 그 이후의 절차를 추진하면 최적화된 국립자연사박물관을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